

#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돌파”

### 김윤덕 의원 “소멸위기 막기 위해 수도권 등과 대등한 규모의 경제 체제 구축해야”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수도권 대전권, 광주·전남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북 소멸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소권 이란 용어 자체가 전북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전북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정의한 경우 정부 정책으로는 전북 발전을



김윤덕 의원

이끌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

성을 통해 전북 소멸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 계획에 전주·완주·익산·군산 새만금을 하나로 잇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는 세종시와 광주·전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주·완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점진적 통합으로 특례시

지정이 선행돼야 보다 쉽게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은 광역교통망계획 전북 묶 찾기, 전주와 새만금 각 지자체를 잇는 경제·산업·문화의 규모화를 통해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은 정치권과 시·군민의 문화·경제·산업의 점진적 협업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간병인·보호자 PCR 검사비용 완화 방안 찾아라”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방역 치료 체계 개편 등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미크론 방역·치료 체계 개편에 따른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자가부담 원칙에 관해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비용이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회 8~12만원 이상 소요되는 PCR 검사비용이 자가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입·퇴원과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보호자들의 경우 많게는 1년에 수 백만원의 추가 부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지역혁신단 관계자들이 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수도권 중심주의·지역 불균형이 낳은 아픔”

### 민주 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지역살이 토크쇼 진행 4차례 걸친 토론회 통해 제기된 지역 정책 문제점 논의 “서울이 아니면 돼, 청년들의 포부이자 목표... 제안 등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지역혁신단이 7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역 살이 토크쇼 ‘서울이 아니면 돼’를 통해 담은 청년들의 소중함 목소리를 전했다.

최서연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은 ‘서울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며 “서울 공화국·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 불균형이 낳은 또 다른 형태의 상처이자 아픔이다”고 밝혔다.

공동선대위 4개 산하단 중의 하나인 지역혁신단은 우리가 지역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목소리를 모아, 지역을 바꿔주기 위한

토론회를 4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토론회 모임편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우리 라는 주제로 ▲지역 모임을 위한 인프라 부족, ▲모임 홍보의 어려움, ▲지원사업의 끝→모임의 끝이라는 지속성 결여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 ‘300 문화마을’ 공약이 지역 모임과 문화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참여한 청년들은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선택권 메뉴 선택권도 없는 우리 라는 주제에서는 ▲도심 외 지역 교통망 부족, ▲관광과 비건 지도 등 인프라 부족 등을 토론했다.

세 번째 반려동물원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라는 주제에서는 ▲반려동물 유기하기 쉬운 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문제 등을 토론했다.

네 번째 지원사업편 지원사업이 지원 아닌 지원인 이유 라는 주제에서는 ▲되려 발을 묶는 행정 중심의 지원사업,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지역 인식, ▲단계별 지원체계 부족 등에 대해 토론했다.

최서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이 아니면 돼는 청년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포부이자 목표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서울이 아니면 돼’를 위한 구체적 제안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전북지역 청년 121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추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청사진에 동의하며,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이력, 지방 행정가로 이룩한 성취, 강한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 국힘 정운천 의원, 완주 정책현안 현장 방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지철 줄 모르는 민생 행보 강행군이 지역 정계에 화제다.

정 위원장은 7일 오후 완주군 주요 현안사업장 일원 3곳을 차례로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몰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완주군 상운리 유적 현장,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우석대 수조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을 방문했다.

정 위원장은 우석대 수조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한 후,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안전성평가센터 건립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완주군 소설근초혁신파크로 자리를 옮겨 지역 청년, 사회경제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발전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정운천 위원장은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완주군을 방문하고 보니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현안 추진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날 정 위원장에게 환경강유역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수조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의 2대 현안을 대안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완주군 주요 현안사업장 일원 3곳을 차례로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몰입했다.

## 6·1 지방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 “정의로운 진안 만들 것”

#### 이한기 도의원, 진안군수 출마 선언

이한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이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구태의 사슬을 끊고, 진안군을 긍정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겠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진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한기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젊은 진안 만들기, 공평체 부활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역 경제 부흥 ▲고수의 농업 실현, ▲관광산업 활성화, ▲출산·돌봄과 교육 지원,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공약을 마련했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누락된 왜곡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미래 100년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며 “이 변화를 통해 군민의 의사를 정책에 충분히 담고, 그 변화가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재 진안군이 농업소득 정체,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건강과 경제적 공평에 시달리는 어르신, 청년 등 정주여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풀어야 할 숙제가 많

다”며 “젊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난 사람도 돌아오는 진안이 되도록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군민 덕분에 군의원·도의원 등 16년 동안 무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받은 능력을 살려 신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진안 발전의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끝으로 이한기 의원은 “군민의 의사가 변화되면 미래 모습은 모두가 행복한 진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니까”... 조지훈 전 경진원장 출판기념회

### 12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서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전주니까 조지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전’ 전주사람으로 지역 전문가인 조지훈 전 경진원장이 펴낸 ‘전주니까 조지훈’은 1장 조지훈이 말하는 지훈의 시간과 2장 전주를 살리는 시원한 생각 지훈생각으로 구성됐다.

그간 살아온 삶과 전주에 대한 애정을 소탈하고 진솔하게 ‘지훈의 시간’에 담았으며, 전주를 그 누구보다 구석구석 잘 알기에 구상할 수 있는 생각들을 ‘지훈생각’ 편에 써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오전 시인회에 이어, 오후에는 북 콘서트로 진행되며, 유부호 조지훈과 함께하는 전주의 변화 로드쇼 생중계될 예정이다.

북 콘서트는 특히, 콘셉트를 달리해 1부·2부로 구성 1부는 KBS 공채 11기 개그맨이자 전주KBS 아침마당 전북 MC로 활약 중인 홍석우 씨의 사회로 도열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 당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발간사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를 통해 “제민지신(君民之產), 국민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한자성어를 늘 잊지 않고 있다. 온전한 세상을 지향하는 전주에서 잘 살아가는 일이란 모두의 바깥길을 찾아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전통과 가치가 살아있는 새로운 모색과 도전이 공존하며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전주의 꿈이 이 책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눈 밝은 독자께서 전주를 지키며 살아온 지훈 생각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전주니까 조지훈 오랜 시간 곁에서 펴낸 만큼 오셔서 전주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우범기 전 정부부지사 “엘리트 경제시장 선언”

### 인공지능 허브 구축 등 첫 정책공약 발표

지난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가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기자 회견에서 우 전 부지사는 지금 전주는 일자리시장, 엘리트경제시장, 청년혁신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돈과 사람이 몰려오는 새로운 전주로 도약하기 위한 세가지 정책으로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날 우 전 부지사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대책, 인공지능(AD)허브 구축,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대학생 중심의 청년대책을 위해서는 ▲전주시청에 청년정책과 신설, 청년창업 대학생 참여 대폭 확대 ▲대학내 ‘전주거점반’ 신설 지원 ▲전



주거업반 출신이 전주거점반 취임 시 정착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전주에 인공지능(AD) 허브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안전한 어린이·떡거리·도로환경·소방·교육·유류 등 ‘시민생활형 스마트시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물류유통 AI시스템 전주에 구축 ▲AI농산물 실시간 수요예측 플랫폼 시범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 카페, 반려견에절화교 등 반려동물 종합테마시설 조성 ▲반려동물 식품 연구개발, 생산·포장 등 반려동물 산업 화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김윤상 기자